

일본의 신화: 오노고로섬

일본의 창조 신화는 하늘, 땅, 그리고 7 대까지 이어지는 원시 신들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. 7 대의 마지막 세대로서 신화의 주인공인 창조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남매가 등장합니다. 다른 신들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게 대지를 만들라고 명하는데, 이 시점의 대지는 유동적이고 혼돈한 상태에 있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천국에서 신의 미늘창(긴 손잡이 끝에 양날 검을 부착한 무기)을 바다로 내려보내 뒤섞기 시작했습니다. 그 후 미늘창을 들어 올리자 창 끝에 소금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오노고로라고 불리는 섬이 탄생했습니다.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오노고로섬에 내려와 신전과 성스러운 기둥을 세웠습니다.